

제시문 <가>~<다> 모두 혁신과정에서의 다수의 역할을 서술한다.그러나 제시문 <가>에서는 수용여부 판단의 역할, <나>에서는 전승의 역할, <다>에서는 창안자로서의 역할을 보인다는 점에서 차이를 지닌다.

제시문 <가>에서는 새로운 종교의 창설이 실패한 예와 종교개혁이 성공한 예를 동시에 언급하고 있다.이는 다수가 새로운 종교를 받아들이는데 있어 스스로 판단 후 수용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.한편, 제시문 <나>에서는 걸작을 모방하는 시도들이 걸작을 전승되도록 한다고 주장한다.아류에는 걸작에 대한 존경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아류를 통해 걸작에 가까워지기 때문이다.제시문 <다>에서는 다수에 의해 새로움이 창안되어 사회가 발전함을 강조한다.무수한 사람들의 연대로 궁극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.

또한 제시문들은 새로움을 받아들이는 태도에서도 상이한 입장을 보인다.제시문 <가>는 새로움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반면 제시문 <나>와 <다>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.제시문 <가>에서의 새로움의 수용은 그 사회 구성원들의 획일화 된 사고를 반영한 결과이다.따라서 다양성이 결여 된 저급한 사람들의 선택이라고 주장한다.이에 반해 제시문 <나>에서는 새로운 아류를 인정한다.새로움을 통해 과거의 걸작을 전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.제시문 <다>에서는 새로움이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생성되어 사회적 진보를 야기시킴을 근거로 새로움을 긍정한다.

그러나 제시문 <나>와 <다>는 새로움의 범위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인다.먼저 제시문 <나>에서는 새로움의 역할을 걸작을 전승하는 데에 한정시켰다.또한 예술에서의 새로움으로 범위를 한정시켰다.이와 달리 제시문 <다>에서는 새로움이 전승의 역할을 넘어 진보의 역할까지 수행함을 제시한다.또한 예술에 한정하지 않고 사회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논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시문 <나>와는 차이를 보인다.